▌이홍재의 세상만사▐

안철수 대표를 위한 변명

논설고문

두 달 전에 이미 예언한 바 있다. 합당의 최대 수혜자는 윤장현이 될 것이라고.(본보 3월 7일 자 2면, '이홍재의 세상만사')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 예언은 적중했다. 이만하면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건가. 스스로 기특하다. 그렇다고 해서 용한 점쟁이처럼 무슨 신통력이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당시 전략공천이 언젠가 이뤄질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뿐이다.

이제 됐다. 재미있게 됐다. 광주시장 선거. 경선만 통과하면 본선은 묻지 마. 투표는 하나 마나. 개표도 하나 마나. 안 봐도 결과가 뻔한 선거. 그런 선거 피할 수 있게 됐다. 참 잘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며칠 전 윤장현(전 YMCA 전국 연맹 이사장) 씨를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광주의 박원순'을 기대한다며. 한밤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전략공천이었다. 이는 물론 안심(安心)이, '철수 생각'이 작용된 것이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의 정치생명을 건 도박인 셈이다.

그의 도박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대박으로 이어질지 쪽박이 되고 말지 아직은 모른다. 다만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이해 당사자의 반발도 당연하다. 당장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논란의 핵심은 전략공천이다. 이를 '폭거'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새 정치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기 사람을 챙기는 구태정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전략공천이란 말의 뜻부터 살펴보자. 전략공천은 통상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에 히든카드 형식으로 후보자를 내는 것이다.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략공천인가 정략공천인가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 2년 전, 부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손수조 후보를 내보냈다. 85년생 애송이인 손 후보. 인지도나 경쟁력에서 한참 떨어졌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기면 좋고 져도 손해 볼 것 없는 장사였다. 결과적으로 성공은 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미지 쇄신의 효과는 톡톡히 봤다.

이번 광주시장 공천도 마찬가지다. 윤장현은 참신한 인물이다. 그러나 조직과 인지도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해 왔다. 전략공천이 아니고는 해 볼 도리가 없다. 안 대표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국에서 자기 사람을 한 명도 건질 수 없게 될 판이었다. 그렇게 되면 '도로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럴 바엔 뭐하러 합당했느냐는 따가운 시선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안 대표의 고민만은 아니었다. 신당 통합으로 허탈감에 빠진 광주 시민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 허탈감은 시장 후보에 대한 복수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합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갔다. 최소한 3명 이상의 다자 대결이 본선에서 이뤄지게 됐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략공천이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난도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오히려 부정확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오로지 한 명의 후보자만을 결정하는 경선이야말로 전체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 본선에서 나올 만한 후보들이 모두 맞붙게 될 경우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명분에도 어울린다.

전략공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신진 인물 수혈, 소수자 배려, 경쟁력 있는 인물 배치 등의 장점이 있다. 1996년과 2000년 15·16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의 성공 사례를 볼 수 있다. 여권의 이명박·이회창·이재오·김문수·홍준표, 야권의 손학규·정세균·정동영·김한길·송영길 등이 그렇게 해서 여의도에 입성했다.

전략공천과 정략공천을 구별할 필요도 있겠다. 당이 정략(政略, 정치상의 책략)에 따라 '깜'도 되지 않은 인물을 내보내는 것이 정략공천이다. 이에 비해 아직은 힘이 약하지만 될성부른 인물을 천거하는 것이 전략공천이다. 심지어 '낙하산 인사'도 적합한 인물만 잘 고른다면 비난을 피할 수 있다. 과거 호남 사람들이 노무현을 택했던 것은 정략투표가 아닌 전략투표였음을 상기해도 되겠다.

선택의 폭 넓어진 광주시장 선거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 조광조의 건의로 실시된 현량과(賢良科)는 조선시대의 전략공천이라 할 만하다. 공정경쟁을 해야 할 기존 과거제도가 세도가(勢道家) 자녀들의 출세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얘기다. 조광조는 숨은 인재를, 개혁적인 인물을 천거하여 조정을 충원했다. 일종의 엽관제(獵官制)다.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새 정치는 불가능한 것. 전략공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윤장현에 맞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두 후보로서는 불쾌할 수 있겠다. 너만 새 사람이냐? 우리는 뭐 완전히 때 묻은 사람이냐? 그렇게 외치고도 싶을 것이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운태·이용섭 둘 다 훌륭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전략공천에 대한 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볼 때 '그릇'이 좀 더 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가령 "오죽하면 전략공천을 했을까 이해된다. 본선에서 직접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 보자"라고. "우리가 기호 2번을 못 받았다 해서 시민들의 선택까지 못 받을 정도로 약하진 않다"라고. 그렇게 성명을 냈더라면 우와! 우와! 시민들의 박수가 이어졌을 것 아닌가.

그러나 이들은 좀 더 '쉽게 갈 수도 있었던 길'을 놓치자 즉각 억울함을 토로했다. 물론 그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는 한다. 하지만 '억울하면 출세하라'(최희준의 '회전의자') 했던가. 아니다. 억울하면 출마를 할 일이다. 기왕에 출마한다고들 했으니 정정당당히 싸울 일이다.

하마터면 밋밋할 뻔했던 광주시장 선거에 생기가 돌고 있다. 각 후보 진영에는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모두 윤장현에 대한 전략공천 여파다. 이제 둘이 나오든 셋이 나오든 '당겨진 활시위'처럼 선거구도가 팽팽하게 됐다.

결과야 아직 알 수 없다. 어찌 됐든 시장 선거,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아주 재미있게 됐다. 각기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 모두 좋은 후보들. 시민들로서는 이 좋은 인물들 중 한 명만 선택하면 된다. 이제 그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다. 참 잘 됐다.

유근기·김양수·강진원 '군수후보' 확정

〈곡성〉 〈장성〉 〈강진〉

새정치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후보 윤곽…룰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전남지역 3명의 기초단체장 단수후보와 6개 시·군 15명의 기초단체장 경선후보를 결정, 공지했다. 또 7명의 광역의원 단수후보와 37개 선거구 광역의원 후보 경선에 나설 115명 후보도 발표했다.

이들 명단은 이날 밤 전남도당 집행위원회와 9일 오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당의 후보 및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곡성군수 후보에 유근기 후보를 확정한 데 이어 장성군수 후보에 김양수, 강진군수 후보에 강진원 현 군수를 각각 단수추천했다.

또 목포시장 경선후보는 박홍률·배용태·이상열 예비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해 '100% 국민여론조사'로 최종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광양시장의 경우 강춘석·김재무·김현옥·이정문 예비후보 등 4명이 '국민여론조사 50%와 공론조사선거인단 투표 50%'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

구례군수 경선후보는 박인환·서기동 등 2명, 무안군수 후보는 김철주·김호산 등 2명, 진도군수 후보는 김희수·이동진 등 2명, 해남군수 후보는 박철환·윤광국 등 2명이 컷오프를 통과해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에서 맞선다.

하지만, 정밀심사대상 현역 자치단체장이 포함된 지역을 포함, 13개 시·군의 경우 공천관리위 회의에서 민주계와 안철수계의 의견차로 경선후보와 경선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은 이날 밤 공천관리위 회의를 열어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천 문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 기초단체장 단수 후보자

※후보자 신청 접수순

지역	성명	경력
곡성군	유근기	전남도의원
장성군	김양수	장성군수
강진군	강진원	강진군수

■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

지역	성명	경선방법
목포시	이상열 박홍률 배용태	국민여론조사 100%
광양시	김재무 이정문 김현옥 강춘석	공론조사선거인단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구례군	박인환 서기동	국민여론조사 100%
해남군	박철환 윤광국	〃
진도군	김희수 이동진	〃
무안군	김철주 김호산	〃

두달만에…강진서 AI 발생

성전면 오리농장 살처분

한동안 잠잠하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강진에서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전남지역에서 AI는 지난 2월 26일 영광 묘량에서 발생한 후 현재까지 2개월이 넘도록 발생이 없어 잠복기가 모두 지난 것으로 판단됐지만 강진에서 발생해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

전남도는 8일 "강진군 성전면 송계로 B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 공무원 180여명을 투입해 살처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축산위생 연구소가 B오리농장의 오리 사체를 수거해 체혈검사를 한 결과, 지난 6일 고병원성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곳은 124개 사육장에서 종오리 2만4000여 마리를 포함해 종오리와 육용오리 등 총 3만5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전남 최대 규모 농장이다.

전남도는 예방 차원에서 이들 오리를 살처분 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월 24일 해남 송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후 1월 25일 나주 세지, 1월 28일 영암 덕진, 2월 6일 영암 도포 등 모두 6건의 AI가 발생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새누리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10명 확정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8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광주시당이 추천한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후보자 10명에 대한 '제6회 동시지방선거 새누리당 광주시당 후보자 확정의결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지난 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상정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기초의원·비례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안을 의결해 중앙당에 추천했다.

확정된 후보자는 ▲광주시장 이정재 ▲서구청장 임인현(여) ▲북구청장 박찬호 ▲서구의원 김광우(서구 다선거구) ▲광산구의원 박삼용(광산 가선거구) ▲김대후(광산 라선거구) ▲시의원 비례1 심은경(여) ▲시의원 비례2 안영신(여) ▲구의원 비례 이옥란(서구·여) ▲김효숙(북구·여) 후보 등 10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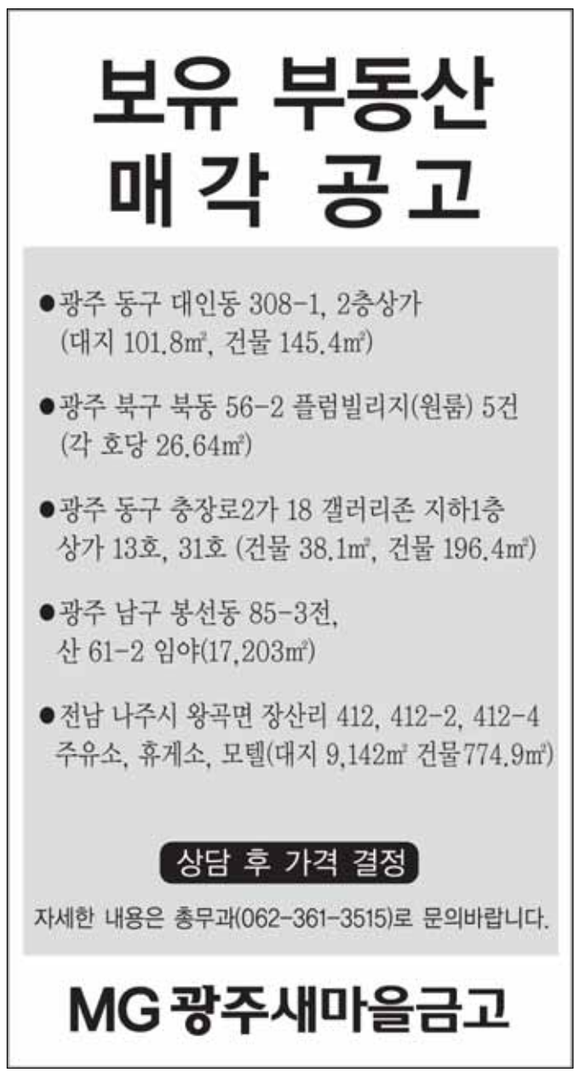
강운태 후보 '시민펀드' 출시

1만원 이하로 제한…5억원 목표

6·4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8일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8일 '강운태 시민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강운태 시민펀드'는 그동안 진행된 정치인 펀드와 달리 1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제한해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 시민펀드 가입자의 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해 민선 6기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강운태 시민펀드는 총 5억원을 목표 모금액으로 하며 1인당 약정액은 1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3%의 이자를 붙여 8월4일 전액 상환하게 된다.

참여 방법은 강운태 홈페이지(www.kanguntae.com)에서 '강운태 시민펀드'를 클릭한 뒤 온라인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금액을 실명으로 개별 입금하면 된다.

강 후보 측 관계자는 "정치인 펀드가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여론에 따라 1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신개념 개미펀드 방식을 구상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허락받았다"면서 "무소속인 강운태 후보가 정당 후보가 아닌 시민후보라는 의미에서 시민펀드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